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제발 · 장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나는 몇 째짜리 불자인고
처음 마음으로	08	묵묵히 수행하라
따뜻한 이야기	14	바베포족의 응서
법정스님 책 속의 책	16	한정록 - 숨어사는 즐거움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18	대나무 회초리
옛날의 금잔디	22	아원 얼굴의 그 소녀
숨어서 피는 꽃	26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문현철의 병영칼럼	30	일단 시작하면 성공에 도달하는 과학적 이유
운명보다 강한 열정	32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사찰의 숲을 거닐다	34	선운사의 동백나무 숲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8	앵무새 되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1월 1일 발행 / 통권 251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나는 몇 점짜리 불자인고

글·법 정(法 頂)

때는 말세라, 부처님 가신 지 오래 되니 못된 무리들은 기세등등하고 불법은 악하여 샳된 인간들이 제 세상 만난 듯이 설치고 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적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많으며, 지혜로운 이는 드물고 어리석은 자만 늘어간다. 자기 자신은 몸소 수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괴로움만 끼치고 있으니, 그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대가 자칫 길을 잘못 들까 싶어 경책하노니, 믿고 그대로 행하여 어김이 없기를 간절히 빈다.

어리석어안 배우면 교만만 들고
어두운 마음 닦지 않으니 '나만을 내세운다
빈속에 뜻만 크니 주린 호랑이 같고
없이 없이 방탕함은 미친 원숭이

요사스런 말에는 곧잘 팔리면서
성현들의 가르침은 모른 체한다.
착한 길에 인연 없으니 누가 건지랴
악도에 헤매면서 고생고생 할 수밖에.
-야운 비구(野雲 比丘)의 <자경문 自警文>

입산 출가한 사람들이 절에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글은, 목우자(牧牛子) 보조 스님의 <계초심학인문(戒初心學人文)>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과 야운 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이다.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 간절한 내용들이다.

많은 경전과 조사 어록을 대하면 서도 처음 절에 들어와 배우고 익힌 이 글만큼 감동이 큰 것은 없다. 초

발심의 그 순수한 열의와 절실한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가까이 두고 독송할 때마다 수도 생활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이 가다듬어지는 것도, 이 법문이 지니고 있는 간절하고 절실한 수도 정신 때문일 것이다. 옛날 어떤 선지식은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할 때마다 이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위에서 세 글을 합해서 부르는 이름)만을 강설했다고 한다. 제자들이 스님은 어째서 이 <초발심자경문>만을 한결같이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평생을 두고 말해도 다하지 못할 무궁무진한 뜻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 이 법문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으뜸가는 당당한 수행자가 될 것이고, 또한 부처를 이루고도 남을 것이다.

흔히 초발심시 변성정각(初發心時 便成正覺, 처음 마음 낼 때에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데, 첫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힌 말이다. 첫 마음이란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의 바탕이다.

우리는 무슨 인연으로였건 간에 그 첫 마음의 작용에 의해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처음 먹었던 간절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사라지고 부질없고 쓸데없는 번뇌만 가득해졌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 내세운 야운 스님의 <자경문>이란 거울에 현재의 우리들 자신을 한번 비추어보자. 출가나 재가를 물을 것 없이 우리가 지금 몇 점짜리의 불자인지 스스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신도들이 모인 한 법회에서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어떤 신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질문을 했다. 자기 친구가 겪은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어떤 절에서 불인 백일기도에 동참하여 바쁜 집안일도 제쳐놓고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그 절의 한 스님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그런 절에서 기도를 해서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고 다음날부터 그 절

에는 아예 발길을 끊고 말았다는 것,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굳이 그 신도의 말을 들출 것도 없이 요즘 출가승단의 생활 규범은 말할 수 없이 문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한두 곳을 지적할 것도 없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심지어 술, 고기를 먹으면서 제멋대로 지내는 것은 대승행大乘行이고 곧 이곧대로 승가의 생활 규범을 지키려는 사람은 꼭 막힌 소승小乘이라고 비웃는 낯짝 두꺼운 무리들까지 버젓이 행세하는 세태이니 더 말할 여지조차 없다.

바깥바람 좀 쐬고 온 사람들 중에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한다. 타이 등 동남아 불교 국가에서는 고기도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는데 한국 불교계에서만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역마다 그 지역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견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쪽은 절에서 지어 먹지 않고 걸식하기 때문에 주

는 대로 얻어먹는 처지 아닌가. 또 담배는 계율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해서 피운다는 것이다.

부처님 생존 시에는 아직 담배 피우는 풍습이 없었으니 그런 규제가 필요 없었다. 그렇지만 수행자의 청정한 생활 규범으로 미루어보면 수행자가 담배 피우는 일은 떳떳하지 못한 덜된 짓 아닌가.

그리고 타이나 동남아 불교 국가의 수행승들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계행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지도 반문해보아야 한다. 좋은 일은 본받지 않고 떳떳하지 못한 일만 변명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은 비열한 것이다. 어떤 무뢰배들은 뻔뻔스럽게도 신도 집에 가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한다니,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귀의승(歸依僧)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물론 병든 수행승이 약으로 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합리적인 계율이다. 육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보신을 하면서도 빛을 잃어가는 정신 상태는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남의 복전福田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떠나없이 되돌아보아야 한다.

중들 믿지 말라는 성철 종정스님의 말씀이 중단 일각에서 한때 시비 거리가 된 적도 있지만, 제대로 된 불자라면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依法不依人-〈열반경〉)

중이 고기 먹는 걸 보고 기도를 중단한 신도한테도 문제는 있다. 기도란 간절한 귀의이고 마음을 여는 일인데, 무슨 영험을 바라고 동참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거래요, 흥정이다.

그런 신도일수록 점쟁이나 사주 관상쟁이를 운명 담당 고문으로 섬기고 있다. 그들의 허무맹랑한 말에는 흠뻑 빠지면서도 부처님의 경전이나 가르침은 귓등으로 흘리고 있다.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해탈)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굳이 종교에 귀의한 것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거둬거둬 개선해나가기 위해서가 아닌가. 말은 불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씀이나 언행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고 옹졸하지 않은지 매순간 되돌아보아야 한다.

기도를 중단하고 그 절에 발길을 끊었다는 그 신도는 고기만이 아니라 고기 먹는 중까지 집어삼키다가 그만 체하고 만 격이다. 진정한 기도에는 우선 마음이 환철하게 열려야 한다.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새 삶을 다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남의 허물 볼 여기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겸허해져야 한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 물어보자. 나는 몇 점짜리 불자인가? 1986

-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서

묵묵히 수행하라

글·덕 운(德 耘)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있을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며 묵연히 도를 닦아가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를 표본으로 삼아 어지럽게 돌아다니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세상 안 태어난 셈 치고 도를 성취하기 위해 처절히 노력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산(雪山)에서 고행(苦行)하실 때 6년 동안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움직이지 않고 수행에 몰두하셨는지 까치가 머리 위에 등지를 틀어도 몰랐다고 합니다.

경전에 표현된 그때의 모습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달타 태자는 숲 속에 고요히 앉

아 선정(禪定)을 닦되, 하루 쌀 한 손가락과 참깨 한 손가락을 먹거나 쌀 한알, 깨 한 알을 입에 넣고 앉아 있었다. 옷은 몸을 겨우 가리는 베옷 한 벌이 전부였으며, 몸을 씻거나 머리를 깎지도 않았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같은 모양으로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살은 다 말라버렸고, 오직 종잇장 같은 살갓이 뼈를 감싸고 있는 형체(形體)로 바뀌었다. 손으로 몸을 만지면 털이 말라 떨어졌고, 배를 만지면 문득 등뼈가 만져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앉아 있으면 나무하러 온 아이들이 쑥대로 कु구멍을 찢어보고, 귀도 당겨보고, 흉과 먼지를 끼얹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

자는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후에 어떤 이가 그 때의 상황을 게송으로 지었습니다.

世尊當入雪山中 (세존당입설산중)
一坐不知經六年 (일좌부지경육년)
因見明星云悟道 (인견명성운오도)
言詮消息遍三千 (언전소식변삼천)

세존께서 당시에 설산으로 들어가셔서 한 번 앉아 육 년이 지남을 알지 못했네. 밝은 별을 보고 문득 도를 깨달으니 말보다 앞서서 그 소식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하여라.

식달타 태자는 움직임 없는 한결같은 자세로 도를 닦아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선종(禪宗)의 초조이신 달마대사께서도 선법(禪法)을 펼 때를 기다리면서 9년 동안이나 움직임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수행자들은 부처님이나 달마대사의 이와 같은 행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결코, 함부로 말하거나 가벼이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득하게 공부하면 반드시 도를 성취하게 됩니다.

또 도(道)를 닦는 사람은 우선 스승과 도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승과 도반을 잘못 만나 한번 샅된 길로 접어들면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줄 스승을 찾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도를 닦을 수 있는 도반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샅된 길로 빠지지 않고 정법(正法)을 만나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탈대도(解脫大道)를 닦고자 하는 이는 작은 도에 만족하지 말고 부처가 되겠다는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큰 뜻이 있어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헤쳐나가며 공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도(佛道)를

성취하여 부처가 되겠다는 큰 원(願)을 가졌으면 올바른 공부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조사관을 뚫는 화두 공부를 권하고 있습니다. 조사관(祖師關)은 조사선(祖師禪), 곧 조사의 선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선을 닦는 수행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바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앞서 들어간 모든 조사들과 함께 깨달음의 세계에서 노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문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 앞서 도를 깨달은 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언어(言語)와 문자(文字), 이론(理論)과 지식(知識)을 초월하여 곧바로 마음자리를 보고 자성불(自性佛)을 확실히 회복하신 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을 통과하려는 자는 조사들로부터 수행(修行)을 점검받게 되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철대오(大悟) 하였음을 인가받으면, 그 문을 통과하여 조사의 성(城)안

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스님들과 재가 신도들이 조사관을 통과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향엄 지한(香嚴 智閑)스님의 오도기연(悟道機緣)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나라 말기에 살았던 향엄 스님은 출가 전부터 총기가 특별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질없음을 깨닫고 출가하여 도를 닦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백장(百丈) 선사를 찾아가 도를 배우다가 얼마 있지 않아 열반에 들어 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위산(滙山) 선사를 찾아가 선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향엄 스님은 교법을 많이 익혀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할 정도로 박학다식하였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위산 선사가 향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백장 스님 밑에 있을 때, 하

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열을 물으면 백을 답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나친 총명과 분별의식은 도리어 생사윤회의 근본이 될 뿐이다. 오늘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네가 부모의 태(胎)중에 들어가기 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 어떠한지를 말해보라.”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본래면목(本來面目) 시심마(是甚麼)?”

이 질문을 듣는 순간, 향엄 스님은 앞뒤가 꼭 막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아도 알 수가 없자, 향엄 스님은 위산 선사 앞에 엎드려 가르쳐 줄 것을 애원하였습니다.

위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네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향엄 스님은 숙소로 돌아와 자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서적과 경전을 뒤지면서 답을 찾았으나 끝내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향엄 스님은 모든 경전과 서적을 불살라버리고, 혜충 국사를 찾

아 남양으로 향했습니다. 혜충 국사라면 자기의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양 땅에 이르렀을 때 혜충 국사 또한 이미 열반에 든 뒤였습니다.

할 수 없이 향엄 스님은 혜충 국사가 머물던 터에 조그만 띠집을 짓고 홀로 정진했습니다.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이 무엇인고?”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본래면목?”

하지만 본래면목을 찾으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본래면목과 씨름하던 어느 날, 향엄 스님은 마당에 풀이 가득 자라나 있는 것을 보고는 풀을 베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풀을 낫으로 베다 보니 기왓조각이 자꾸 낫에 걸려 기왓조각을 뽑아내어 옆으로 휩 던졌습니다. 그 날아간 기왓조각이 굵은 대나무에 가서 세계 부딪혔습니다.

“딱!”
향엄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확철대오 하였습니다.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의 도리를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향엄 스님은 목욕재계하고 향을 사르며 멀리 위산 선사를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대비대은(大悲大恩)은 부모보다 더 크웁니다. 만일 그때 저에게 언어를 빌어 답을 주고자 하셨던들, 어찌 오늘의 법열(法悅)을 맛볼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오도송(悟道頌)을 지었습니다.

一擊忘所知	(일격망소지)
更不假修治	(갱불가수치)
動容揚古路	(동용양고로)
不墮悄然機	(불타초연기)
處處無踪跡	(처처무종적)
聲色忘威儀	(성색망위의)
諸方達道者	(제방달도자)
威言上上機	(위언상상기)

대나무 딱 치는 소리에 아는바 모두 잊으니
다시 닦고 다스릴 것 없네.
얼굴을 움직일 때마다 옛길 이 드러나고
초연히 기틀에 떨어지지 않는도다.
이르는 곳마다 자취가 없고
생색이 위의(威儀)를 잊으니
제방의도를 통한 이들이
모두 상상의 기틀이라 말하네.

향엄 스님은 바로 위산 선사를 찾아가 깨달음을 점검받았고, 위산 선사는 크게 만족하며 인가를 하였습니다. 향엄 선사의 경우처럼 침식을 잊고 일심(一心)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누구나 반드시 조사관을 뚫고 도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화두(話頭)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어간다면 모든 번뇌망상이 눈 녹듯 사라지고 화두가 오매일여가 되어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몽산 스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공부를 짓되 털

끝만치라도 판생각을 두지 말아야 할 지니, 가고 멈추고 앉고 누우며 다못 본참화두(本參話頭)만을 들어서 의정을 일으켜 분명히 끝장 보기를 요구할 것이니라.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판생각이 있으면 고인이 말한바 잡독(雜毒)이 마음에 들어감에 혜명(慧明)을 상한다 하니, 수행자는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판생각은 비단 세간 법뿐만 아니라 마음을 궁구하는 일 이외에는 불법(佛法) 중 온갖 좋은 일이라도 다 판생각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어찌 불법(佛法) 중 일뿐이리오. 심체상(心體上)에 취하거나, 버리거나, 집착하거나, 변화

하는 것이 다 판생각이니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몽산 스님의 말씀대로 잡생각 없이 일심으로 해 가야 합니다. 꼭 화두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는 공부, 즉 경전, 기도, 다라니 등 그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심히 정진한다면 머지않아 모두가 깨달음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칩니다.

- 불기2559년 11월 초하루 법문
(2015년 12월 11일)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최근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 고독사, 무연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기부문화 캠페인과 더불어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독거노인의 생계비와 난방비,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채워진 저금통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중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013-787953(맑고 향기롭게)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사)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바벰바족의 용서



남아프리카 부족 중의 하나인 바벰바족 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벰바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자들은 이 부족을 연구하여 마침내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들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시작합니다.

비난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장점의 말들을 한마디씩 쏟아내는 것입니다.

“넌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고마워!”

그렇게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해줍니다.

그렇게 칭찬이 끝나고 나면 그가 새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는 축제를 벌이고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축제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사회에 적용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가족끼리라도 먼저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나아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달의 명언

인간을 사랑할 것.

아무리 나약한 인간이나 초라하고 불쌍한 인간도 사랑할 것.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 것.

- 생텍쥐페리 -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따뜻한 하루'

한정록 - 숨어사는 즐거움

허균 지음 / 김원우 엮음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무소유 사상을 설파하시던 법정 스님은 세상에 명성이 알려지자 1992년 4월,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뒤로 하고 누구에게도 거처를 알리지 않고 화전민이 살다가 버리고 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홀로 수행 정진한다.

“내가 산중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기죽지 않고 나날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받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스님은 여러 차례 ‘겉에서 나 자신을 받쳐 주는 친구’ 중의 하나로 허균의 <한정록>을 꼽았다.

“요즘 나는 등잔불 아래서 허균(許

筠)의 <한정록>을 다시 펼쳐들고, 옛 사람들이 자연과 가까이하며 조촐하게 살던 안빈낙도의 삶을 음미하고 있다. 몇 해 전에 이 책을 처음 읽고 나서부터 허균을 좋아하게 되었다. 우선 사나이다운 그의 기상과 독서량에 압도되었고, 임진왜란을 전후한 파란만장한 생애가 불우했던 지난 왕조사를 되돌아보게 했다. 어느 시대이고 귀재들은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오두막 편지>의
‘허균의 시비 앞에서’ #

“지난밤 자다가 깨어 허균이 엮은 <한정록閑情錄 - 숨어 사는 즐거움>을 다시 읽었다. 옛사람들의 자취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배울 바가

참으로 많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를 배울 수 있다. 가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는 일이 풍류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홀로 사는 즐거움>의
‘오늘 하루 내 살림살이’ #

<숨어 사는 즐거움>의 토대가 되는 <한정록>은 중국의 여러 책에서 속세를 떠나 은거하여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록을 뽑아 만든 책으로 총 17권 4책으로 이루어진다.

속세를 벗어나, 또는 속세 안에서 부와 권력의 탐욕을 뿌리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은둔자의 한거(閑居)하는 모습을 담은 <한정록>은 한거자로서 지녀야 할 여러 가지 덕목과 함께 자족적인 은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농사법에 관한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허균은 <한정록>에 실린 모든 글을 붓으로 한 글자씩 정성들여 종이에 옮겨 적었다고 한다.

하루 이틀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

는 엄청난 양의 글을 필사한 허균은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 우리는 서문의 한 구절을 통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날 언젠가 숲 아래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세상을 버린 선비를 만나게 될 때 이 책을 꺼내 서로 즐겨 읽는다면 내 타고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저버리지는 않으리라’

그것은 바로 허균 자신의 산림(山林)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구속을 싫어한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허균은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불여세합(不與世合)’ 즉, ‘세상과 화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허균은 역적모의의 죄목을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여섯 번의 파직과 세 번의 유배를 겪었다. 순탄하지 못했던 삶은 허균 자신의 생애를 돌아켜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는 은둔사상을 동경하여 4천 권이 넘는 중국 선가(仙家)의 서적을 발췌하여 『한정록』을 집대성하였다.

대나무 회초리

글 • 김광석(법학 교수)

나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매 맞는 기억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맞고 살았는지. 물가에 얼씬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 저녁은 죽도록 매를 맞았었고, 바닷가에서 망둥이 낚시라도 하다가 아버지께 들기기로 하는 날엔 그날도 죽도록 맞아야만 했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펄 바닷가가 있어서 썰물 때면 크림 같은 미끌미끌한 감촉의 개펄 위를 마치 잔디밭처럼 뒹굴고 장난치고 노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집에 돌아올 때엔 웅덩이의 고인 물로 동무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흔적을 지우건만 늘 나를 검사해주는 녀석은 꼭 실수를 하는 바람에 매번 들키고 말아늘 맞아야만 했었다.

언젠가는 유난히도 낚시를 좋아했

던 나는 낚싯대를 만들 생각에 아버지가 벼를 베려고 잘 갈아 놓으신 낫을 몰래 집어 들고 뒤꼍 대나무밭에 들어가 큰 대나무를 베었다. 아버지는 무더진 낫을 보자마자 나의 소행이라는 것을 급세 알아채시고는 나를 잡으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하도 많이 맞아서 아버지의 수사한 몸짓을 눈치챈 나는 살아남으려고 죽어라 도망을 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아버지와 나의 쫓고 쫓기는 숨 막히는 일전은 송뜰을 두 바퀴째 돌다가 숨이 목에 차올라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잡히고 말았다. 아버지와의 장거리 육상 경기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건만, 도망가는 동안 얼마나 공포에 떨었었는지 모른다.

동네 사람 누군가가 구세주가 되

어 나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지만 끝내 구세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처참하게 끌려서 집으로 돌아와 이번엔 도망가지 못하게 기둥 나무에 새끼줄로 푼푼 묶인 채 대나무로 죽도록 두들겨 맞았었다. 그 딱딱한 대나무가 흐느적거릴 때까지.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손으로는 따귀 한 차례 때린 법이 없었다. 꼭 대나무로 나를 때리었다. 가느다란 대나무부터 굵직한 대나무까지 내 성장에 걸맞게 대나무를 고르셨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대해 철저하게 매정했고 정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골 촌놈인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그때까지 중학교 수학여행을 제외하고는 시골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농사철이 끝난 겨울엔 대도시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사업을 도와드리곤 했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이 난 듯 깡충거리며 따라나서는 건 내가 아닌 동생이었다. 이번엔, 이번

엔 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마음의 준비를 마친 뒤 목욕재계하고 아버지의 호명을 기다렸으나, 아버지 손을 잡고 나서는 것은 팔 남매 중 유일한 동생 진학이 뿐이었다. 그때 그제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른다. 실제(진짜)의 기차도 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많은 자동차도 타보고 싶었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나는 도시 구경을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애꿎은 할머니만 나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만 했었다.

아버지가 가신 후 한 해를 넘기고 난 뒤 어머니가 더 연로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내가 모르는 얘기들을 들어 보기로 하고 이것저것 여쭙보면서 어머니께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부자간의 정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팔 남매의 큰아들로서 어찌 소중하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위로 누님 셋을 둔 후 대망의 큰아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아버지의 자상한 기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한 무서운 형사처럼 어머니께 다짜고짜 아버지가 나를 귀여워한 적이 있었느냐고, 정 많은 아버지였음을 증명이라도 해주는 최후의 증인이 돼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쭙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한 것처럼 “그걸 말이라고 하나. 너 어릴 적엔 늘 포대기에 엮고 다녔어야.”라고 하신다. 그렇구나! 다시 기억을 더듬어보니 여기저기 아버지의 끔찍한 한에 대한 사랑이 군데군데 베어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내가 다섯 살 때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을 어머니의 말씀과 합성해가면서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풀어본다.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큰 수술이었던 맹장염 수술을 영산포 재중병원에서 받았었다.

급성맹장염이어서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였지만 교통수단이 없는 터라 마을 사람들이 손수레에 싣고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를 서너 시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수술을 받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 후 아

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고 할머니가 간병을 맡으셨다. 할아버지를 보내시고 겨우 6년이 지나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번엔 집안의 기둥인 큰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으니 할머니는 얼마나 놀라셨으랴.

얼마 지나지 않아 인편으로 아버지가 큰아들이 보고 싶다며 데리고 오라는 전갈을 받았다. 난 이웃 정간네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가서 할머니랑 셋이서 생활을 했었다. 병원은 좁은 방안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 다섯 살 철부지였던 나는 좋아서 아버지의 배 위에 올라 날뛰다가 아버지의 수술부위를 밟게 되었고 병원이 발각 뒤집히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는가. 수술하고 아직 아물지도 않은 부위를 아무리 다섯 살 어린아이라지만 그 통증은 가히 짐작이 갈만하다. 그래도 혼란 기억은 없다.

이것뿐이 아니다. 늘 정기적으로 집에서 키운 닭과 오리를 잡아 한약재를 넣고 푹 달인 누런 기름 한 통기를

오직 큰아들에게만 마시라며 챙겨주셨고, 어려운 형편에 당시 최고급 복합영양제인 원기소를 나와 동생에게는 꼭 챙겨주셨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처럼 큰아들의 건강에 늘 신경을 써 주신 아버지를 다시 찾아본다.

울력을 나갈 때도 난 아버지 뒤를 쫓아다녔었다. 십리원 간척사업 현장에도 그러했고 국민학교 건축 울력에도 그러했으며 그럴 때마다 석작(대나무로 만든 뚜껑이 있는 바구니)에 담은 점심을 같이 나눠 먹던 꿀 같은 기억들도 소복소복 음이 트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어리석은 나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서야 아버지가 든 대나무 회초리에 담겨 있는 소중한 사랑을 하나하나 다시 더듬어 본다. 왜 하필이면 대나무 회초리였을까. 혹시 거기엔 내

가 미처 생각지 못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대나무는 늘 푸르름을 잃지 않으며 강한 번식력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신령의 힘과 능력, 그리고 위엄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도 한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평생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 품 안을 떠나서 그 날 아버지가 일러준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이것을 신조로 삼고 지금까지 대쪽같이 한길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의 나의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또한 대쪽 같은 분이셨다.

김광석 중학교를 졸업하고 15세의 나이로 나천철기 기술을 익힌 뒤 주경야독으로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 도중에 사업 실패로 중도 하차했다. 그 후, 학비 마련을 위해 택시 운전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여,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나고야대학 법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나고야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야윈 얼굴의 그 소녀

글 • 윤언덕(작가)

남자가 어느 나이에 도달해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친했던 아니든 간에 예상보다도 많은 여자가 떠오를 수도 있다. 이제는 오래된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대학 2년을 마치고 휴학한 뒤 7월에 입대(入隊)하여 모진 첫겨울을 보낸 후 병영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4월의 어느 봄날이었다.

요즘 군대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말뚝 근무'라는 것이 있었다. 부대의 정문인 위병소 근무나 무기고나 탄약고 보조 근무를 온종일 한다고 해서 '말뚝'이라는 악명(惡名)이 붙은 것이었는데 선임 사병들의 횡포로 주로 힘없는 후임 사병들이 종일 교대 없이 혹사당하기 일쑤였다. 어떤 날은 교대 근무자가

오지 않아서 하루 세끼를 거른 채 근무하는 경우도 예사였다.

나는 주로 아침 6시부터 10시에 끝나는 아침 위병(衛兵)근무를 해야만 했는데 그 시간에는 부대 앞 도로 교통정리도 같이해야만 했다. 부대가 위치한 K 도의 시골 도시 K 군에는 방직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아침이면 통근버스들이 떼를 지어 부대 앞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부대 앞에서 보조 근무 중인 안경 쓴 군인을 누군가 눈여겨본 모양이었다.

'OO방직이라는 로고가 그려진 버스가 부대 정문 앞을 막 지나갈 때 차 안에서 돌맹이 하나가 위병인 나를 향해 '툭'하고 떨어졌다. 근무가 끝난

뒤 아무도 몰래 돌맹이를 쓴 종이를 펴보니 쪽지 메모가 적혀져 있었다. 쪽지의 내용은 매일 아침 오빠를 버스에서 지켜보며 사모하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그런 내용이었다.

매일 고된 노동과 이유 없이 행해지는 선임병사들의 구타로 괴롭기 짝이 없는 와중에서 묘령의 여성으로부터의 사귀고 싶다는 편지가 왔던 것이다. 4월, 맹춘(孟春)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며칠 후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락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 수정에 수정을 가해서 정성스레 쓴 편지를 저녁에 퇴근하는 방위병을 통해 발송했다. 이틀 후 부대로 답장이 날아왔는데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통근할 때마다 부대 정문에서 근무 중인 오빠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자주 편지를 해도 괜찮겠어요?'라는 내용이었는데 수줍음 탓인지 글씨체는 초등

학교 저학년의 글씨체처럼 비뚤비뚤했고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엉망이었던 게 특이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매일 나를 지켜보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실에 그 여성의 정체는 날이 갈수록 궁금해져 갔다. 그렇게 편지를 두어 번 주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대 밖에 공적인 업무로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 일을 마치고도 1시간가량 여유가 남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편지를 보낸 주소지의 공장으로 곧장 달려갔다.

공장 경비 아저씨에게 김 아무개 양을 면회 왔다고 용건을 말했다. 그는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전화를 걸어 '김 아무개양에게 군인 한 명이 면회 왔다고 전달하고 내게 주어진 면회 시간은 15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이 스무 살 정도 되는 순박한 시골 처녀가 나오겠지 하는 짐작을 하며 그녀를 기다리는데 약 10분이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열리고 수위 아저씨는 나를 향해 '당신이 찾는 사람이 왔다고 말했다. 순간 나와 눈이

부딪친 여성을 대하고는 나는 ‘억’ 소리를 지를 만큼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이는 많아 봐야 14살에서 15살 정도, 키는 140cm가 겨우 될까 말까 하는 매우 마르고 창백한 얼굴의 어린 소녀가 등장했다. 누렇게 뜨다 못해 하얀 얼굴의 야위고 깡마르며 작은 체구의 얼굴을 한 중학교 1~2학년 정도의 소녀가 겁먹은 모습으로 내 앞에서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움에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웅성거리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근처에 소녀와 같이 근무하는 듯한 30~40대의 아주머니 대여섯 명이 깔깔거리며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둘의 면회 장면을 훑쳐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소녀에게 편지의 주인공임을 말하고 ‘불일이 있어서 근처에 온 김에 이렇게 면회 신청을 했다…….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다…….’는 말을 했다. 그 소녀는 흥담무 얼굴을 한 채 흡사 병어린 것처럼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으며 아주머니들이 만든 주변의 웃음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뇌리에 가득했다. 어색함 속에서 주어진 15분의 면회시간 중에서 5분을 채우지 못하고 소녀는 스스로 면회실을 떠났고 이후 나는 곧장 공장 정문을 나서야 했다.

사흘 후 부대로 편지가 왔다. 물론 그 소녀에게서 온 편지였다. 총 네댓 줄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였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오빠, 그날 오빠가 가고 난 뒤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오빠를 그렇게 보내고 난 뒤 나는 내가 참으로 죄가 많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여자를 이제는 잊어주세요…….’

귀대한 후에 한참을 생각했다. 한창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응석을 부려야 할 나이이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아

바(Abba)나 카펜터스(Carpenters)의 노래에 흥미를 느끼고 라디오의 팝송에 귀를 기울여야 할 또래였다. 무엇이 어린 소녀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가난 때문이었을 것이다. 많아 봐야 중학교 저학년 나이의 소녀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정서적으로는 30~40대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때 묻은 신파조(新派調)대사를 읊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스스로가 ‘죄가 많은 여자라니’가 막힐 일이었다.

그날 저녁,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 편지를 쓰기로 했다. 우연히 읽었던 유명 작가 펄 벅(Pearl Buck) 자서전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해 내었다.

‘젊은이여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에 자신을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이라는 구절이다.

내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인생을 그다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너보다는 조금 더 산 것 같다. 네가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매

우 참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어야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다. 나와 같은 어른에게 편지하지 말고 틈이 나면 동화책이나 시집, 소설책을 읽는 것을 권하고 싶다. 힘들겠지만 중학교 과정 공부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그리고 내게 편지를 주어서 매우 고맙았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물론 이후로 소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금쯤 40대 중반의 아줌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군대에서 보낸 3년 가까운 시간은 과거 어린 시절 무성영화에서 보았던 화면 위의 세로로 난 스크래치처럼 스쳐 지나간다.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나는 언덕을 다 올랐을 때 다가오는 반카운 하늘 같은 자리를 그 소녀에게 찾아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철없는 호기심에서 시작한 편지질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났다.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 공학박사를 만났다. 일산 컨텍스에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된 국제 보조공학 심포지엄에 초청 강사로 초빙되어 한국에 왔다고 했다.

심포지엄은 “특수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약 2,000명의 국내외 특수교육 및 보조공학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세계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일본, 대만, 미국의 재활복지공학회의 회장단이 참가하여 국가별 특수교육 사례와 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는 메인 심포지엄과 한국재활복지공학회가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로 나누어 진행됐었는데 미국 비치버그대학교 재

활과학 및 기술학과 교수인 시각장애인 가현욱 박사는 <재활공학 및 보조기술에 대한 사물인터넷 기술의 장점과 도전>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의 강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장애인의 보조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는 그의 모습은 당당하고 패기가 넘쳐흘렀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에도 여러 대학에서의 초청 강의를 소화하느라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고가는 정신없이 바쁜 일정이었다.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의 출발 시간을 기다리며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의 당당한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온 고단한 날들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부산의 가난한 맹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 역시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다. 부모님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집에 가두어 두고 거리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 생활도 일곱 살 때까지였다. 일곱 살 때 소년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 몸부림치며 울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에 가슴에 품고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 ‘내 부모 같은 어른이 되지 말자’ 다짐도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부모 같은 어른이 될 것만 같았다. 두려웠다. 그래서 무작정 고아원을 뛰쳐나와 서울로 왔다. 고아이기 때문에 수업료 없이 맹학교 고등부에 다닐 수 있었다. 자신의 부모처럼 되지 않으려면 대학진학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대학 진학 공부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5,900원이면 수학 참고서를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점역을 하려면 10만 원이 더 들었다. 돈이 없는 청년은 점역을 할 수 없어 선배들이 쓰고 버린 책으로 악착같이 공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학진학에 실패하고 말았다. 청년은 스스로 ‘내 인생은 불량품이다.’ ‘재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을 원망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눈이라도 주어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 달라는 데 그 청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찌라는 것이냐”며 좌절했다. 그리고 책을 덮어버렸다.

공부를 포기하고 7년여를 허송세월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터널 속과 같은 시간이었다. 희망이 없었다. 인미를 하기는 했지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도 없이 그냥 일을 했다. 그러던 중 입시철이 되었다. 마음이 아팠다. 내 부모님 같은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 질문의 대
답으로 책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마
침내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고 부전공으
로 교육공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이 공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과
감하게 교육공학을 부전공과목으로
정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
나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물러서겠
다”며 교수들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공학도가 되어 주변 사
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 청년
이 공학도로 공부하기 위해서 뛰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았다.

첫째 그가 해야 할 일은 보행훈련
을 하는 일이었다. '교문에서 연구실
까지는 1,357걸음, 공학관 계단 수는
2층까지 8개, 이런 식으로 교내의 모
든 것들을 익혀야 했다.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고, 뚜껑
이 열려있는 맨홀에 빠졌지만, 그의
열정을 멈추지는 못했다. 그렇게 거
리감을 익히고 그 감각에 의존해 캠퍼
스를 오가며 공부에 전념했다. 그

청년의 눈썹에는 그때 꺾맨 상처가
흔장처럼 남아 있다. 그렇게 연세대
학의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미
국 피츠버그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유학생으로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과 인공지
능을 이용한 중증장애환자의 의도파
악에 관한 것과 로봇을 이용한 재활
병동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와 특수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 연구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몇
개의 특허권을 획득하여 학교와 개인
의 명예를 높였다.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 피츠버그 대
학의 추천으로 장애와 관련된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예비과학자로서 미
국 전역에서 선발된 20명 중 한사람
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석학들
과 교류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어떻
게 응용할 수 있을지를 조언하고 자
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재활공학
관련 학회에 제출한 연구논문이 연

이어 연속 2년 우수논문으로 채택되
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국제재
활공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센서가 부착된 케인(지팡이)
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의 단독보행
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인
지능이 가능한 휠체어를 개발하여
시각과 지체장애의 중복장애인이 휠
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
장구를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는 현재 피츠버그 대학 재활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판
사가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새로운 분
야의 도전 목표가 되었듯이 공학박사
또한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미래의 희
망이 되었다.

그가 감사하는 것이 있다. 맹학교
에서 교육받았던 침술과 안마(마사
지)가 그의 학업에 크게 도움이 되
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연구하고 있
는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는 의료와
공학을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마사지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맹학교에서 배웠
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의사들에
게 마사지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시각장애인으로 공
학을 하겠다는 도전 정신에서 출발하
였다. 그가 자랑스럽다. 도전하는 삶
이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2016년에 다
양한 문화 활동(미술, 공연, 사진, 인문학, 강연 등)을 기획하는 분과의 교류를 원합니
다. 우리 심성과 세상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
그램을 이웃과 나누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나눠줄 수 있는 분과의 소
중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또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
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
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중앙모임 사무국 02.741-4696 / clean94@hanmail.net

일단 시작하면 성공에 도달하는 과학적 이유

글 • 문헌철 (조선대 법학과 외래교수)

학교로 돌아와 아직 잉크 냄새 남아있는 새 교과서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서니, 군 복무 마치고 복학한 성숙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가슴이 흐뭇하다. 이렇듯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시작함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해봤다.

시작은 축복이다.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 가족과 처음 만나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았는가? 백일과 돌잔치에서 자신은 세상 축복의 주인공이었다. 학생들과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으로 현지 학습 갔을 때 고교 졸업생들의 리무진 거리 퍼레이드를 보고 감동했다. 부모로부터 독립된 한 사회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 부모와 친인척, 이웃의 환호와 격려·축복 속에서 그들은 새롭게 세상과 만나는 것이다.

시작은 용기며, 도전이다. 새로운 시작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준다.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다. 시작은 직진의 관성을 갖는다.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은 일도 일단 시작하면 성공할 때까지 가게 되는 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작은 용서며, 자기치유,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한없는 자유로움을 가져다준다. 시작은 어제를 정돈할 때 받는 선물이다. 분노는 과거의

감정에 머물게 될 때 생기는 종양이다. 훌연히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시작이 주는 선물이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 분노와 이별하게 돼 참다운 자유를 가져다준다.

시작은 겸손이며 철학이다. 시작은 자신에 대한 예의고 타인에 대한 배려다. 새롭게 시작함은 과거의 감정에 안주하는 교만과 게으름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겸손의 철학이다.

시작은 열정이고 부지런함이다. 노력은 시작에서 출발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성실한 한 사람의 일상은 매일 새롭게 시작한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한 에디슨의 말은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재능이 천재성이라는 의미다.

시작은 창조며, 행동과학이다. 새롭게 시작함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학

적 메커니즘이다. 고정관념과 상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 발상은 늘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래서 시작은 또한 창조의 출발이다. 시작은 꾸준함이고 반복과 연습이다. 일단 시작하면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도전의 발걸음이라는 행동과학과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시작은 기적이며, 신비로운 행동예술이다. 계속 시작하고 시도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시작이 기적인 이유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인가?

입대·입관도 군문의 시작이고 전역·퇴직도 세상을 향한 시작이다. 당장 새롭게 시작하자.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자. 용서하고 부지런하자. 작전지역에 펼쳐지는 가을이 오는 산과 들, 하늘과 바다의 변화, 대자연도 새로이 시작하니, 나도 시작하자. 성공이라는 기적과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시작하면 과학적으로 성공한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두 손을 다 합쳐 손가락이 네 개이고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 기형의 1급 장애인 이희아. 그러나 그녀는 열 손가락이 다 있는 일반인도 연주하기 어려운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혼신의 열정으로 연주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피아니스트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 기형 1급의 장애인으로 삶을 시작한 그녀는 연필이라도 질 수 있게 하려는 부모님의 의지로 7세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다. 피아노 연주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몸으로 청중 앞에서 당당하게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의 날갯짓에 비유되기에 충분하다.

밥 먹는 시간만 빼고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는 그녀,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사지 기형인 몸이기에 피아노 페달을 밟는 것도 쉽지 않은 엉덩이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두 손을 합쳐 손가락이 네 개뿐이기에 얼마나 많은 손놀림이 있어야 〈즉흥 환상곡〉을 연주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녀의 연주는 처절한 삶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엉덩이가 짓물러 부어올라도 살아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갈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그렇게 힘겹게 보낸 연습의 시간이다. 5년 반이란 끝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그녀가 있기까지 옆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준 그녀의 어머니는 100년 전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의 존재와 비유해도 한 치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누구나 성공이란 것을 하고 나면 주위의 시선은 당연히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내면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이는 소수이다. 전 세계 장애인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희망 전도사인 이희아는 콘서트 기금과 성금을 모아 북한의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고 있다. 피아노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녀는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임에 틀림없다.

부모님의 의지로 7세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그녀 자신조차도 피아니스트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즉흥 환상곡〉

을 연습하여 피아노 선생님께 테스트를 받기 위해 갔을 때, 냉담한 소리를 들었다.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네 손가락으로 치는 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 〈즉흥 환상곡〉을 포기하라는 평가를 받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오늘의 그녀는 없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인생의 안내자인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낸 5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즉흥 환상곡〉은 이희아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다. 밥벌이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냉정한 현실에서 그녀와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기 위해 수없이 흘린 눈물이 있어, 그녀는 부족함을 열정으로 채웠고, 채워진 열정은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이 되었다. 우리는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녀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선운사의 동백나무 숲

글 •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주변을 감싸고 동백 숲이 있는 선운산은 백두대간이 남으로 내달리다 영취산에서 주춤하여 방향을 바꾸어 서진하면서 주화산에 이르러 북으로 금남정맥을 흘러놓고 남서쪽으로 다시 내달리다가 지리산을 향하여 남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내달리던 기운을 멈추지 못해 동진강과 황룡강으로 물길을 갈라놓는 영산북기맥을 형성하게 된다.

영산북기맥은 호남정맥에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의 입암산에서 뻗어나와 방장산, 문수산을 거쳐 남서진하여 영광으로 다다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장산으로부터 서쪽으로 해안가에 툇 펼쳐놓은 산이 바로 선운산(도솔산)이다.

선운산은 도솔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고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의 뜻으로 선운산이나 도솔산이나 모두 불도(佛道)를 닦는 산이라는 뜻으로 곳곳에 기암괴석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고 숲이 울창한 가운데 천년 고찰 선운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선운사의 뒤쪽 대웅보전을 감싸듯 둘러진 숲이 바로 그 유명한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85호)이다.

미당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 가수 송창식의 “선운사” 모두 선운사의 동백꽃을 노래하였는데 이 노래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설움과 슬픔과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핏빛처럼 붉



동백나무 꽃

은 꽃의 색과 꽃잎과 꽃술이 한데 붙어있어 꽃이 질 때는 통째로 떨어지는 꽃의 특성 때문이 아닐까?(땅에 떨어진 꽃들이 연출하는 붉은 땅의 모습도 장관이라 함)

선운사 동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84호)은 고창군 아산읍면 삼인리 일대에 노목의 기풍을 자랑하며, 대웅보전 뒤로부터 도솔암에 이르기까지 16,000㎡에 3천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수령은 500~600년으로 추정된다. 겨울철에도 화려한 꽃봉오리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선운사 동백나무는 그러나 산불이 가람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내화림으로 심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주훈 박사는 “옛 문헌에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선운사 대웅전 뒤에 동백나무 숲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상록활엽수인 동백나무는 잎이 두껍고 수분함유율이 높아 사철 산불의 진행을 최대한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운사는 또 대웅전에서 동백나무 숲까지 15m 이상 공간을 띄워 산불이 동백나무 숲에 옮겨 붙는다 해도 절 마당까지는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운사뿐만 아니라 전등사, 해인사, 미황사 등의 사찰주변 식생을 살펴보면 목조건물이 주를 이루는 사찰의 건축 특성상 이미 오래전부터 사찰주변에는 방화수림대 조성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낙엽활엽수(넓은잎떨기나무), 낙엽침엽수(바늘잎떨기나무), 상록활엽수(넓은잎푸른나무), 상록침엽수(바늘잎푸른나무) 등으로 구분되는데,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록활엽수에 해

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해안지역, 울릉도를 포함한 동부해안지역일부, 서부해안지역 등으로 제한된다. 이 중 동백나무는 웅진군 대청도의 동백나무자생지(천연기념물 제66호)를 동백나무 자생의 북방한계로 보고 있다.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는 차나무과의 상록활엽수로서 대부분 아래에서 가지가 갈라져 키가 많이 크지 않은 관목상태로 많이 볼 수 있으나 때로는 높이가 10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잎은 마주나고 표면은 짙은 녹색이며 윤채가 있고, 뒷면은 황록색으로 잎자루가 있다. 꽃은 붉은색으로 가지의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피며, 꽃받침잎은 5개, 꽃잎은 5~7개가 밑에서 수술과 함께 합쳐진다. 수술대는 백색이고, 꽃밥은 황색이다. 동백나무 열매는 보통 씨방이 3개로 되어 있고, 각각의 씨방에 암갈색의 열매가 하나씩 들어있다.



동백나무 열매와 씨앗

그런데 동백나무는 곤충이 활동하지 않는 계절인 겨울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겨울에 꽃이 피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동백나무는 흔하지 않은 조매화이다. 즉 새가 꽃가루를 옮겨주어 수정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동백나무 꽃에 대롱대롱 매달려 빠르게 움직이며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며 동백꽃의 꿀을 먹는 암녹색의 작은 새가 바로 동백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동박새다.

동백나무 열매(씨앗)는 예전에는 머릿기름으로 사용한 천연화장품인 동백기름을 만드는 원료이다. 동백기름의 주성분은 올레인산(70~85%)으로 비타민 A, B, E를 함유하고, 피부에 잘 스며들어 피부노화억제 크림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의 수분손실을 막아 주므로 피부와 모발의 컨디셔닝 효과가 매우 좋아 중국과 일본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여성들이 주름살 등 피부 노화현상을 억제하고, 피부와 모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대에서 사용하는 헤어컨디셔너(무스, 젤) 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천연화장품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업용으로 소량 이용될 뿐이다.

선운사에는 봄꽃은 아니지만, 초가을에 꽃을 피우는 아주 중요한 식물이다. 부처님을 장엄하는 4종 천화(天華) 혹은 12종 천화의 한가지로 포함되는 만수사화 즉, 꽃무릇(석산)이 바로 그 중요한 꽃이다. 9월초에서 중순까지 선운사 주변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꽃무릇은 목조건물의 단청에 쓰이기도 하고,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는 꽃이다.

불교경전(한글대장경)에서의 꽃무릇(만수사화)은 대반열반경에는 사라쌍수 아래 물을 뿌려 청소하고



꽃무릇(만수사화)

자리를 펴도록 하였다. 아난이 청소를 마치고 준비한 승상(繩狀, 줄을 짜서 만든 의자)에 누워 입멸 준비를 하자 사라쌍수가 때아닌 꽃을 피워 붓다에게 공양하였고, 이어 모든 천신·용·귀신 등 8부중이 허공에서 비 내리듯 온갖 미묘한 꽃 즉 만다라화(曼陀羅花)·마하만다라화(摩訶曼陀羅花)·만수사화(曼殊沙花)·마하만수사화(摩訶曼殊沙花)들을 부처님 위에 뿌리고, 또 우두전단(牛頭栴檀) 등의 향을 뿌리고, 하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패(讚頌) 등으로 찬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수사화 즉, 꽃무릇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각자 석가모니부처님을 장엄하는 천화이기 때문에 해마다 가을이면 선운사 주변 계곡을 붉게 물 들이고 있다.

앵무새 되기!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여러분의 말하는 방법은 주로 가족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하는 일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말을 처음 배울 때 같이 살던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으로 평생 말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을 맞추고 말을 들어주었다면, 그 아이는 상대에게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고, 부모가 '네 생각은 어때?'라고 질문하며 키웠다면,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어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시나요? 아니면, 귀로 듣기는 하지만, 표정은 없으며,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나요?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시고, 아래 상황에 할 말을 적어보세요.

상황 - 어느 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고등학생아들에게 엄마가,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아들은 얼굴을 외면한 채 무성의한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밥 준비를 다하고 엄마가, '아침 먹을 준비 다 됐어. 밥 먹어야지?'

'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일어난다.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대답과 외면이 일주일 계속되었다. 주말에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지금 세탁기 돌리려고 하는데, 빨래할 것 있으면 내놓을래?'

'…….'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방문을 닫는다.
엄마의 말: _____

이 상황에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말입니다. '네! 왜 엄마 말을 무시하니?'입니다. 더 심하면,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라고 버럭 화내는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에게는 더 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애를 키웠지?', '저렇게 하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못 하다니……. 한심한 엄마네…….'라고 생각하며 불편한 맘으로 뒤돌아서겠지요.

세 번째는 아이의 상황을 짐작해서 말하거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엄마 말 못 들었어?', '엄마 말에 귀 기울이지 못 할 만큼 힘든 일 있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네 번째는 나의 느낌을 말하는 것

입니다. '네가 아무 답도 안 하고 문을 닫아서 놀랐어. 엄마 말 못 들었어?' 혹은 '네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 걱정되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이 적은 말은 어느 것에 해당되시나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대화를 하면 공감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즘 너에게 말하는 것이 좀 두려워…….'

고등학생 아들은 약 1분쯤 가만히 있더니,

'엄마, 나 요즘 막 화가 내!' 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을 들은 저는 당황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화가 나니?'

'응!'

'화를 참기 어려워?'

'응!'

'…….'



저는 뭐라 말을 이어야 할지 몰라 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자꾸 나는구나…….' 라고 앵무새처럼 따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응. 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

이 상황에 제가 해 줄 수 있는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이……. 너 사춘기로구나? 사춘기 너무 늦게 온 것 아니야?' 라고 하며 웃음으로 마무리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왜냐하면, 당황한 것을 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준비하는 부엌으로 아들이 들어오며,

'흠흠……. 무슨 냄새예요?'라고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상태를 말한 것만으로 엄마와 소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람기도 하였고,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감을 받으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자신감이 생겨 가슴을 펼 힘이 생깁니다. 이런 힘들이 쌓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80% 정도 변한 아들은 일주일 정도 걸려 '막 화가 나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공감해주시고, 어떻게 공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앵무새처럼 따라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소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만남' 함께할 청소년 봉사자 모집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해 생의 의지를 돕우는 활동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자녀를 둔 회원님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2016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 출력 및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사)맑고 향기롭게는 마음, 세상,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재정부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모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시는 후원금 및 물품에 대한 현황을 집계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모임에 가입한 후원회원(가족)님의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후원자의 성함과 출금계좌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본모임에 등록된 후원자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또한,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게 홈페이지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중앙모임 → 참여, 후원 → 나의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인터넷 서비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모임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www.yesone.go.kr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출력 서비스
www.clean94.or.kr → 참여, 후원 → 나의 후원내역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앙모임 대의원 추천, 지원받습니다.

본모임 정관과 중앙모임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2016년 2월 ~ 2018년 2월까지 임기제 대의원을 본모임의 취지와 정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되며, 역할은 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등 기타 중요 사항이며, 대의원 추천 및 지원 자격 요건은 본회 회원으로서의 회원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이고,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낸 경우 선거권(추천)이 있으며,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낸 사람에게 피선거권(지원)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본모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방법 : 전자 우편, 우편, 팩스, 방문
- 추천 및 지원기간 : 2016년 1월 20일까지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신청서 :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무국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발송 안내

본모임은 월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를 발간하여 군 법당, 병원, 교도소, 복지단체 등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연간 소정의 우편비용을 후원하는 분에 한해 개별우송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상사 신도등록, 기도, 인등 접수된 불자님은 길상사에서 별도로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에서는 소식지 발송 우편비와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송되거나 오랜 기간 후원 내역이 없는 회원님의 경우 본모임 활동에 참여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년간(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후원내역이 없는 분은 부득이 개별우송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후원해주셨거나, 사정이 있어 후원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소나 후원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연락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2016년도 달력 우송 안내

11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후원해주시신 회원님에 한해 지난 12월 15일 2016년도 달력을 우송해드렸습니다. 간혹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후원을 하셨는데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확인 후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부 목적으로 12월에 후원하신 분에게는 1월에 별도로 달력을 우송해드립니다. 2016년 달력은 본모임 회원 '월강 권영오'님의 사진작품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2015년 중앙모임 송년회 진행하였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2015년 송년회를

12월 5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한 해 동안 본모임을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과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맑고 향기롭게와 인연을 맺고 자원 활동에 참여하신 봉사자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모든 인연님을 모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웃음과 미소로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130여 명의 후원회원, 봉사자께서 참석하였고, 길상사 공양간에서 채식뷔페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한 해 동안 활동한 사업을 교류하고, 모범적으로 봉사하신 회원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즉석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분께는 덕운 이사장 스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법정 스님 저서 '맑고 향기롭게'를 한 권씩 선물로 나눠주었습니다. 행운권 추첨과 즉석 장기자랑에는 '천원화장품, 무소유, 리폼 가방, 길상사 기도, 축원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본모임이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회원님과 봉사자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양보하며 나누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모든 회원님과 봉사자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아울러 늘 응원해주시는 길상사 신행단체장님과 신도님의 관심과 참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에도 모든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마음이 모여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맑고 향기롭게 정기 지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2016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새해 새 마음으로 참여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길 분은 연락해주세요.

- 따르릉~ 전화말벗 자원 활동

전화말벗 자원 활동은 결식어웃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



까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 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매주 월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많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매월 일요일)

매월 첫째 일요일 진행해오던 묘회원(노인요양원)의 농사일과 시설 정비 자원 활동에 봉사 일거리가 많지 않아 2015년 12월로 종료하고, 2016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에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 집을 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분

녹색장터가 열리지 않는 겨울동안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를 비롯한 친환경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실 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변경 안내

매월 수요일별로 진행하던 천연화장품 강좌를

격월(짝수 달) 수요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 일정 : 짝수 달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 (많고 향기롭게 소모임방)
- 강좌주간순서 : 천연 헤나 & 하수오 샴푸 · 세라마이드 로션 · 한방 상백피 에센스 · 한방 비누 & 녹차스킨

※ 강좌는 본모임의 일정, 강사의 사정, 참여 인원이 적을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의류 리사이클링 소모임 강좌 참가자 모집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류를 재활용하여 생필품으로 재순환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무료 강좌를 진행합니다.

- 강사 : 김영숙(의류 리폼 봉사자)
- 일정 : 1월 ~ 3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간 정도)
- 자격 : 회원, 봉사자, 신도
- 인원 : 최대 5명의 소모임으로 대략 3개월 과정
- 장소 : 길상사 내 세계일화실
- 내용 : 참가자가 안 입는 옷(청바지, 남방 등)을 가져와 손바느질, 재봉틀을 활용한 리폼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여 각자 가정에서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

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치료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목, 금요일(7,8,14,15,21,22,28,29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4,11,18,25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일요 자원활동 : 첫째 일요일(3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6

일)/오후 1시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6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재활용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5,12,19,26일)/세계일화실

• 의류 리사이클링 강좌모임 : 매주 금요일(8,15,22,29일)/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는 격월(짝수 달)로 진행됩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지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자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말벗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벗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다섯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흥,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화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잔타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철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신정합동차례

- 일시 : 2016년 1월 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다라니기도

- 일시 : 1월 2일(토) 오후 7시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월 9일(토) 오후 8시 30분 ~ 1월 10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1월 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월 10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월 2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주말 선 수련회

- 238기 : 1월 16일 ~ 1월 17일
- 239기 : 1월 23일 ~ 1월 24일
- 장소 : 설법전

- 참가비 : 5만원
- 접수 : 길상사 홈페이지(입금 선착순 마감) 교무실(02.3672-0036)

성도재일 철야기도

- 일시 : 1월 16일(토) 저녁 9시~새벽 4시
- 장소 : 극락전

시간	기도
21:00~22:30	다라니 11독 석가모니불 정근
22:30~22:40	휴식시간
22:40~24:00	화엄경약찬게 21독 석가모니불 정근
24:00~01:00	죽 공양 및 휴식(후원)
01:00~02:20	금강경 독송 석가모니불 정근
02:20~02:30	휴식시간
02:30~03:35	108참회 석가모니불 정근
03:35~03:40	자리정돈
03:40~03:55	참선 및 발원문

천수회(템플스테이 봉사) 회원 모집

천수회에서 하는 일은 템플스테이 준비, 진행, 마무리입니다. 템플스테이는 한 달에 두 번(셋째 주, 넷째 주) 주말에 있습니다. 금요일에 오셔서 준비를 도와주시거나, 토요일에 오셔서 진행을 도와주시거나, 일요일에 오셔서 마무리를 도와 주셔도 됩니다. 일요일 새벽에 오셔서 아침 공양 준비와 마무리를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요일은 자유롭게 정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신심 있는 불자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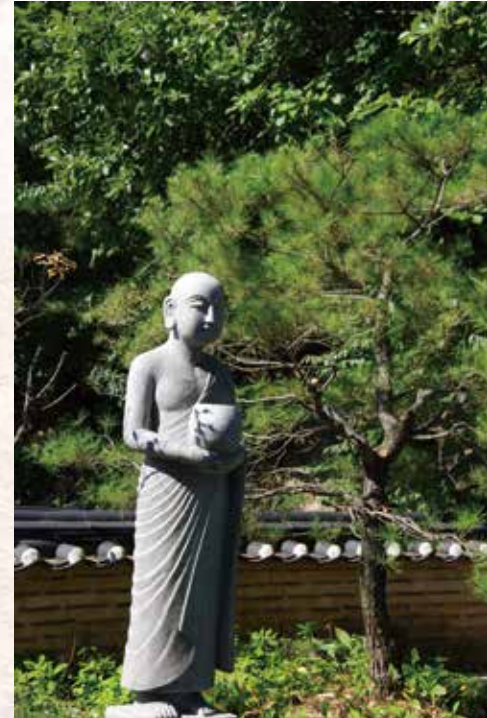
길상사 '간다르바'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길상사 '간다르바' 합창단에서는 음성공양으로써 부처님 법을 전파하며 봉사과 수행을 같이할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 지원 자격: 만 40세 ~ 60세 / 음악에 관심 있는 신심 있는 불자 / 사중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찾진 봉사를 함께하실 불자
- 연습 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 소강당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입춘기도	2월 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2월 6일	오후 7시	극락전
설날합동 차례	2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정초기도	2월 10일 ~ 2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2월 13일	오후 8시 30분 ~ 오전 3시 50분	극락전
동안거 해제	2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2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2월 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2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25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진각 거사

석존(釋尊)은 길에서 태어나 평생을 길 위에서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길에서 돌아가셨다.

그는 각자(覺者)의 사명을 다하느라고 하루도 실 날이 없던 활불(活佛)이었다.
마지막 입멸(入滅)하는 순간까지도 교화중생하던 젊은 활불이요 동불(動佛)이었다.
그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시물(施物)이나 받아 먹는 노오란 좌불(坐佛)이 아니었다.

〈영혼의 모음 : 부처님은 좌불이 아니었다 中〉

기초경전반 개강

- 과 목 : 예불문 / 천수경 / 반야심경
- 개 강 일 :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총8주)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주간반>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강의장소 : 설법전
- 수 강 료 : 5만원(교재비 포함)
- 강사스님 : 각경스님 (길상사 교무스님)
- 문 의 : 길상사 불교대학 02-3672-0036

2016년 불교대학 7기 모집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6년도 제7기 길상사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 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 법사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 학 제 : 1년 2학기제
 - 일 정 : 2016년 3월 초 입학 ~ 2017년 1월 졸업
 - 입학자격 :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타사찰에서 수료하였을 경우, 수료증 사본 제출)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주간반/야간반)
 - 강의장소 : 길상사 설법전
 - 제출서류 : 길상사 불교대학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2매
 - 문 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 ※ 자세한 학사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